제21편 – 제3신앙촌시대〈마지막〉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83회)

제21편
제3신앙촌시대 마지막
一. 삼천년성(三千年城)
1) 하늘나라 천국인 삼천년성
2)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二. 삼신앙촌과 삼천년성
三. 회복된 하나님 나라 삼천년성

一. 삼천년성의 출현

"나하고 삼천년성에 들어가 영원무궁토록 함께 살자(1981.1.영모님)"

이 말씀은 영모님께서 1981년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삼천년성이란 이름도 처음으로 한 말씀이다. 이때 영모님은 안찰을 해주면서 새끼손가락을 걸며 "나하고 삼천년성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함께 살자"고 하셨다. 이때는 완성자 구세주 하나님의 출현이 성공리에 이루어진 시점이다.

영모님의 삼천년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위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영모님 통하여 처음으로 듣게 되는 말씀이 너무도 많았다. 그런데 이 시점에 또 삼천년성이라는 처음으로 듣게 되는 용어가 나온다. 지금까지 영모님은 설명도 없이 그와 같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니 다들 당황했지만 이번도 마찬가지로 영모님은 일체의 설명도 없이 그냥 삼천년성이라는 용어를 던지시는 것이다.

영모님은 전도관을 세우고 전 교인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천년성의 왕이 되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다들 천년성의 왕이 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묵 20장). 그래서 전도관 식구들은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천년성의 왕이 되자 우리 성도여"라는 찬송을 얼마나 힘차게 정성을 다하여 불렀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영모님은 천국이 셋이 있는데 첫번째 천국은 마음 천국이고 두번째 천국은 천년성이요 세번째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마음 천국(눅 17:21), 천년성(묵20). 영원한 천국(묵21)의 이와 같은 3단계의 천국 중에서 두번째 천국이 천년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영모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던 영모님이 1981년에는 설명도 없이 돌연 삼천년성에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다. 다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하늘나라 천국(天國)인 삼천년성(三千年城)

성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三層天)에 갔다가 왔다는 기록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삼층천(三層天)에 갔으니 그때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고후12:2)"

여기서 사도바울은 삼층천에 갔다왔다고 적고 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황홀경에 빠졌었다는 것이다. 바울의 위 기록을 신학자들은 하늘공중의 첫번째 궁창이 첫번째 하늘나라이고, 그 위의 두번째 궁창이 있는데 이것이 두번째 천국이요. 또 그 위에 세번째 궁창이 있는데 이곳이 세번째 하늘나라인 바울이 가보았다는 삼층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막연한 환상적인 이론으로 장님 문고리 잡듯이 하는 일은 그만하여야 한다. 또 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허황된 엉터리 논리에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순진한 교인들을 속이는 일은 이제는 그만하여야 한다. 하늘 공중은 마귀의 신이 전권을 잡고 있는 곳이다. 공중권세 잡은 신인 마귀가 있는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은 하늘 공중에는 안 계시는 것이다(에베소 2:2. 6:12).

영모님이 말씀하신 삼천년성은 이긴자 구세주의 마음인 동시에 구세주가 계신 승리제단 성전이다

바울이 가보았다는 삼층천(三層天)은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꼭대기의 세번째 궁창이 아닌 영모님이 말씀하신 삼천년성을 말한다는 것을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한다.

천국이라고 하니까 글자를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天國)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천(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인류의 조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하늘 공중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쓴 내용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쓴 곳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몇 개만 성경의 기록을 찾아 적어보겠다.

①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새(대하 28:5)"

② "그러나 내가 성신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었으면 곧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리라(마 12:28)"

③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마 19:24)"

④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마 21:43)"

⑤ "바리새교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오리까 묻거늘 대답하여 가로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볼 수가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나니라(눅 17:20-21)"

이상과 같이 하늘나라 천국(天國)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찾아 보았다. 이외에도 무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분명 하늘나라 천국(天國)이라는 것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으신다는 강력한 뜻이 그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을 말한다.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하나님은 마귀 옥에 갇혀 계시면서 종살이를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강력한 뜻과 함께 하나님 자체의 해방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뜻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시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2) "하늘나라"(天國)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 나라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였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니 "대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볼수가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대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나니라"(눅 17:21)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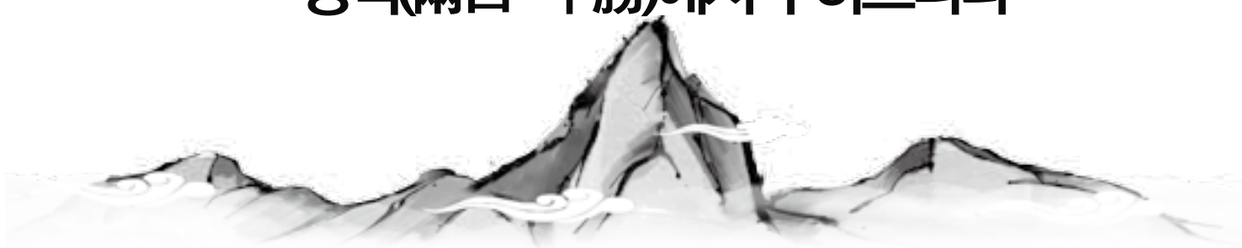
이 말은 천국이 하늘 꼭대기 궁창이란 곳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한 상태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속의 천국이 임함을 말씀한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복된 하나님이 사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94회

사람의 참 종자(참사람)는 양백(兩白=十勝)에서 구하느니라



兩白論 양백론

天國神民 천국신민되자하면
心淨手淨行動淨 심정수정행동정에
人物長生扶人救命 인물장생부인구명
人間積德 인간적덕하올세라
衣白心白天心化 의백심백천심화로
이도亦是역시 兩白양백일세
朝鮮民族患難時 조선민족환난시에
天佑神助白衣人 천우신조백의인을
河洛天地六一水 하락천지륙일수로
兩白聖人出世 양백성인출세하야
十勝大船 십승대선지여놓고
苦海衆生極濟 고해중생극제로세

천국에서 사는 하늘 백성이 되려면 마음도 깨끗, 손도 깨끗, 행동도 깨끗이 하여야 하며 사람과 만물을 영생하게 하려면 사람을 돕고 생명을 구제하는 등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심령(心靈)이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되어(衣白心白)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이도 역시 양백이니라. 조선 백성이 걱정 근심하는 환난(患難)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백의민족을 보우하사 하도낙서와 천지간의 생명수(1.6水)를 가지고 양백성인(兩白聖人=정도령)이 출세하셔서 십승의 큰 배를 지어놓고 죽음의 고해(苦海)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느니라.

先天河圖右太白 선천하도우태백과
後天洛書左小白數 후천락서좌소백수
左右山圖弓弓之間 좌우산도궁궁지간
白十勝 백십승이 隱潛 은잠하니
山弓田弓田弓山弓 산궁전궁전궁산궁
兩白之間十勝 양백지간십승일세
河圖洛書理氣靈山 하도락서리기령산
世上四覽 세상사람몰랐으니
本文之中七十二圖 본문지중칠십이도
仔細窮究 자세궁구하여보소
先後天地兩白星 선후천지양백성
易理出聖靈王 역리출성령왕으로
兩白十勝傳 양백십승전했으니
人種求於兩白 인종구어양백일세

선천하도(先天河圖)는 우태백(右太白)이요 후천낙서(後天洛書)는 좌소백(左小白)이니 이 둘을 합하면 양백(兩白=太白+小白)이며 십 수가 되니라.

좌우산도(左右山圖) 즉 하도낙서의 궁궁지간(弓弓之間)에 백십승이 숨어있으니 산궁(山弓=산에 있는 궁)이 전궁(田弓=밭에 있는 궁)이요 전궁이 산궁인데 양백 사이가 십승일세. 하도의 리(理)와 낙서의 기(氣)가 합일한 신령한 산을 세상 사람은 몰랐으니 본문 중에 나오는 72궁의 그림을 자세하고 깊이 연구해 보소. 선후천지(先後天地) 즉 선천(先天=하도), 후천(後天=낙서)에서 나오는 양백성인은 역의 이치에 나온 신령한 왕으로서 '양백' 십승으로 전했으니 사람의 참 종자(참사람)는 양백에서 구해야 함일세.

天兩白 천양백을알렀으니
地兩白 지양백을다시알소
太白聚起餓死鬼 태백취기아사귀요
小白橫斷行頭魂 소백횡단행두혼을
先師分明傳 선사분명전했으니
白兮白兮白而不生 백혜백혜백이불생
地理兩白無用 지리양백무용으로
天理兩白生 천리양백생이라네
天地合德兩白聖人 천지합덕양백성인
禮法更定先聖道 예법갱정선성도로
敎化萬方廣濟時 교화만방광제시에
三豊道師風飛來 삼풍도사풍비래라

천양백(天兩白) 즉 하늘의 양백을 알았으니 지양백(地兩白) 즉 땅의 양백을 아소. 태백산엔 굶어 죽은 귀신들이 모여 있으며 소백산엔 머리 잘린 혼백들이 돌아다닌다고 옛 스승 정감선사께서 분명히 전했으니 백(白)이여 백(白)이여 하면서 태백산 소백산을 찾아가면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리니 지리양백(地理兩白)은 아무 소용없고 천리양백(天理兩白)만이 영생이로다. 천지합덕 즉 선천(先天)의 하도와 후천(後天)의 낙서가 합덕(合德)한 양백성인이 예법과 선성(先聖) 즉 옛 성인의 도를 다시 고쳐 세계만방의 백성들을 널리 교화하고 구제할 때에 화우로 삼풍 해인을 마음대로 부리는 청림 도사(靑林道師)가 바람처럼 날아오느니라.

三豊論 삼풍론

穀種求於三豊也 곡종구어삼풍야니
三豊論 삼풍론을또들으시오
先天洛圖後天洛書 선천락도후천락서
中天海印理氣三豊중천해인이기삼풍
三天極樂傳 삼천극락전한 法법이
兩白弓乙十勝理 양백궁을십승리로
小男中男兩白中 소남중남양백중에
人白長男出世 인백장남출세하니
三日化 삼왈화이 三豊삼풍으로
乾金甲子成道 건금갑자성도로다
天地兩白 천지양백 우리先生
人道三豊化 인도삼풍화했나니
十皇兩白弓乙中 십황양백궁을중에
三極三豊火雨露 삼극삼풍화우로로
兩白道中十坤 양백도중십곤이요
三豊道師十乾 삼풍도사십건일세
坤三絶 곤삼절과 乾三連 건삼련을
兩白三豊傳 양백삼풍전했으니
無穀大豊豊年豊字 무곡대풍풍년풍자
甘露如雨三豊 감로여우삼풍이라

곡식의 종자는 삼풍(三豊)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으니 삼풍론을 또 들으시오. 선천하도(先天洛圖) 후천낙서(後天洛書) 중천해인(中天海印)의 이(理)와 기(氣)가 삼풍이요. 삼천(三天=선천 후천 중천) 극락을 전한 법이 양백 궁을 십승의 이치로서 소남(小男=선천하도), 중남(中男=후천낙서), 양백 중에 인백(人白) 장남으로 출세하나니 셋(소남, 중남, 장남)이 합하여 삼풍(三豊)으로 화(化)하니 건금갑자(乾金甲子)로 무극대도를 완성하도다.

천지양백(天地兩白)의 우리 선생이 인도(人道=중천운의 인존의 영생지도) 삼풍으로 화했나니 십황(十皇), 양백(兩白), 궁을(弓乙) 가운데에 삼극(三極) 즉 선후중, 천지인의 완성자가 가지고 오는 삼풍(三豊)의 화우로(火雨露)가 그것이요. 양백도(하도낙서)에서 나온 십곤(十坤)과 삼풍도사(三豊道師) 십건(十乾)이 그것이니라. 곤삼절(坤三絶)과 건삼련(乾三連) 즉 지천태(地天泰)를 양백 삼풍(兩白三豊)이라 전했으니 땅에서 나는 곡식이 없어도 대풍을 이룬다고 풍년 풍자를 썼는데 비처럼 내리는 감로가 삼풍이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